



## 즉시 사용

비고

\* 국무총리 모두말씀은 회의시작 직후에 기배포 되었습니다.

담당

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

과장 김규형, 서기관 박용주  
(044-200-2341, 2343)

## 경북 포항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의결

- 이 총리, 제2차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 및 제6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재 -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0일(월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 겸 제6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.
  - \* 참석자 : 기재부·교육부·과기정통부·국방부·행안부·문체부·환경부·국토부·해수부 장관, 국무조정실장, 산업부·복지부·중기벤처부 차관, 방통위 상임위원, 원자력안전위원장, 기상청·문화재청·경찰청·소방청장
- 이날 회의는 지난 16일 오전 개최된 제1차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,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.
- 이날 회의에서 △행정안전부는 「포항 지진피해 수습상황 및 향후 대책」, △교육부는 「11.23 안정적 수능시험 시행을 위한 범부처 지원 대책」, △국토부는 「이재민 주거지원대책」 등을 보고했고,
  -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심의·의결했으며 신속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마련키로 했습니다.
  - 또한, 11.23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, 시험장 변경으로 인한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시 수송 수단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.

-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확보된 160채 주택에 즉시 입주토록 하고, 가용주택을 추가 확보해 이재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로 했습니다.